

사상체질의학의 영원철학적 접근

허 훈*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Abstract

The perennial philosophical approach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oon Heo*

Dept. of Teaching, College of Education Former Lecturer, Chung-Ang Univ.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universal truthfulnes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ennial philosophy and the integral psychology.

Methods

Aldous Huxley's *The perennial philosophy* and Ken Wilber's Literature of integral psychology such as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was compared with Gyukchigo(格致藁) and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Also investigated the literature of various countries related to constitution(temperament).

Results and Conclusions

1. Historically, there are various constitutional theories, but the constitution that best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 in *the perennial philosophy* of Aldous Huxley i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The Sasang theory(四象說) and Four element structure(四元構造)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as confirmed to be the same as AQAL(all quadrants & all levels) of Ken Wilber.
3. The Sasang theory(Four element structur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as presented ahead of Ken Wilber's AQAL(all quadrants & all levels), therefor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as universal truthfulness.

Key Words: *The perennial philosoph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Gyukchigo, Donguisusebowon, AQAL(all quadrants & all levels)*

Received February 15, 2019 Revised February 19, 2019 Accepted March 4, 2019

Corresponding author Hoon Heo

Dept. of Teacher College, College of Education, Former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3, Haemiryedang 1-ro 236beon-gil, Jinjeop-eup, Namyangju-si, Gyeonggi-do, Rep. of Korea
Tel : +82-2-428-0433, Fax : +82-2-481-3130, E-mail : huhhoon@sen.go.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동무 이제마(李濟馬, 1837-1900)가 창안한 사상체질의학(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은 현재 다방면에서 학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단 한의학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정치학, 윤리·교육학, 유전학·과학 등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순수 의학적 범위 내에서 동무의 사상설(四象說)을 분석·응용하는 데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타 분야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의철학(philosophy of medicine)¹⁾, 의심리학(medicopsychology) 분야 쪽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사상체질의학의 경우 유학(儒學)의 심성론(心性論)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심리학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학계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영원철학(perennial philosophy)²⁾과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³⁾의 관점에서 사상체질의학이 갖는 특성과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심리학의 제4세력’⁴⁾이라고 불리는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윌버(Ken Wilber, 1949~)의 통합심리학은 영원철학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영원철학은 고래(古

來)의 철학자들,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 사상가, 그리고 과학자들 중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 보편적인 진리관, 세계관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말해, 사상체질의학은 이러한 ‘영원철학’이 갖는 철학적 내용의 의학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체질의학의 이론적 보편성은 영원철학이 갖는 범인류적 보편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 本論

1. 영원철학의 체질론과 사상체질론

영원철학(perennial philosophy)의 ‘perennial’은 다년생 식물을 뜻하는 ‘perennia’에서 나왔다. 그래서 영원철학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철학, 본질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철학적 내용이 여러 시대와 문명을 가로지르며 나타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시공을 가로질러 인간 ‘의식(意識)’과 ‘실재(實在)’⁵⁾의 본질에 대한 인류의 공통적인 통찰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철학적인 통찰은 주로 여러 종교의 전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Leonard Huxley, 1894~1963)는 자신의 저서 『영원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에서 ‘Perennial Philosophy’라는 용어를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G. W. Leibniz, 1646~1716)가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슬람 학자 세예드 호세인 나스르(Seyyed Hossein Nasr, 1933~)에 따르면²⁾ ‘philosophia perennis’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은 구약을 연구하던 이탈리아 학자 아고스티노 스테우코(Agostino Steuco, 1497-1548)라고 한다. 스테우코는 자

1) 다른 말로 ‘의학철학(醫學哲學)’이라고 쓰기도 한다. 사상체질의학의 경우 ‘한의학철학(韓醫哲學)’이 그에 해당한다.
2) 영문명 “The perennial philosophy”는 우리말로 보통 ‘영원한 철학’ 혹은 ‘영원의 철학’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외에도 ‘영원철학’, ‘항존철학’, ‘영속철학’, ‘만년철학’, ‘불멸의 철학’, ‘궁극의 철학’ 등으로도 불린다. 본고에서는 ‘영원철학’으로 번역한다.
3)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켄 윌버는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고 ‘통합심리학(Integral Psychology)’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서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석학”, “인간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이라는 칭송을 받는다.
4) 1968년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1908~1970), 안소니 슈티치(Anthony Sutich, 1907~1976)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영성과 의식의 변성 상태(altered states of consciousness)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자아초월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이라고 명명한다. 그리고 자아초월심리학은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에 이은 ‘심리학의 제4세력’이라고 선언한다.

5) 조효남은 영원철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영원의 철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존재와 의식을 최하위의 가장 조밀한 그리고 가장 단편적인 영역으로부터 최상위의 가장 정묘(현묘)subtle하고 가장 통일된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이한 차원적 수준을 ‘계층(위계)hierarchy’으로 설명하는데 있다.”(조효남, 의식·영성·자아초월 그리고 상보적 통합, 서울:학수림; 2008. p.73.)

신의 저서 『Deperenni philosophia』(1540)에서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동일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 역시 “여러 철학의 학파들에 파문혀 흩어져 있는 진리를 찾아내 통합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히 참된 것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쓴⁶⁾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하지만 여러 종교와 철학의 비전(秘傳)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간추리고 정리한 사람은 헉슬리이며⁷⁾, 미국의 통합심리학자 켄 윌버(Ken Wilber, 1949-)가 영원철학을 자신의 이론적 기초 원리이자 통합사상의 기본 전제로 삼으면서 전 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⁸⁾ 윌버에 의하면, 영원철학은 ‘소위 영적 스승들, 전 세계의 성인·현자·철학자·사상가·사색자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세계관’이다.

그런데 헉슬리는 그의 『The Perennial Philosophy』에서 인류의 공통된 전통 지혜 중의 하나로, ‘기질(Temperament)⁹⁾과 ‘체질(Constitution)¹⁰⁾에 관한 내용⁴⁾을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이 시점에서 윤리학으로부터 심리학으로 잠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 영원철학 지지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쪽으로는 개인의 체질(Constitution)과 기질(Temperament), 다른 쪽으

로는 영적 삶의 종류와 정도, (이 둘) 사이에는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을까? ……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⁵⁾.

그는 지난 3000년 동안 인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체질[기질]에 관한 주제는 아직 완전히 탐구되지 못한 광대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범주의 분류법을 소개한다.

먼저, 고대에는 심리-생리-사회적 범주에 따른 분류¹¹⁾와 의학적인 분류¹²⁾가 있었으며, 최근 18세기 및 19세기 초에는 다양한 인상학적(physiognomic) 체계가 있었고, 심리적 이분법의 분류법¹³⁾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분류법들은 그 이전의 분류보다는 더 완성도가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분류법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차이점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인간을 히포크라테스식의 구분처럼 생리적으로 나누든, 아니면 칼 융의 분류에서처럼 심리적으로 내향과 외향으로 구분하든,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법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⁵⁾.

실제로 중국의 광조원(匡調元) 역시 “국의(중국 의) 의학사에서는 기원전 400년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6) 라이프니츠는 1714년 레몽드(Nicolas Remond)에게 보내는 유명한 한 편지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7) 헉슬리는 자신의 저작 『영원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에서 세계종교철학의 공통적 요소를 27가지, 400여개의 인용문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8) 아마존(amazon.com) 도서 분류에서 ‘Perennial Philosophy’ 분야의 영문(英文) 도서만 해도 수백을 넘는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에 영원철학(The Perennial Philosophy)을 개설하기도 한다.

9) “기질은 체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오랜 개념인데, 처음에는 인류학에 속해 있다가 후에 심리학 연구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기질은 개체의 심리특징(心理特征)으로 체질개념과 같지 않다. 기질 특징은 정신(精神)과 행위방면(行爲方面)으로 표현된다.”(匡調元. 人体質學-中醫學個性化治療原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3. p.349.)

10) 체질 개념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관련 학자들은 다소 견해를 보인다. 이의주는 “체질이란 ‘형체에 기능을 결부시킨 것으로 유전적 체질의 형성요소와 생활환경적 요소가 합쳐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 내린다.(이의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서울: 집문당, 2006. p.11.)

11) 고대 힌두의 방법으로 ‘카스트(caste)’를 말한다.

12) BC 400년경 페걸렉의 증세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던 히포크라테스는 두 가지 주요 습성(habits)에 따라 페걸렉(phthisic)성 사람과 졸중성(apoplectic)의 사람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네 가지 체액(혈액·점액·흑담즙·황담즙)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 가지 성질(뜨겁고·차갑고·촉촉하고·건조한)로 구분하기도 한다.(Huxley A.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1990. p.147.)

13) 심리적인 이분법은 ‘내향과 외향’이라는 두 가지 분류법을 말한다. 이외에도 헉슬리는 “크레치머·스톡카드·비올라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완성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심리-생리적 분류법이 있다”라고 말한다. 에른스트 크레치머(Ernst Kretschmer, 1888-1964)는 독일 정신과 의사로 인체를 연구해 유형학(typology)을 정립한다. 체격과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해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체격·성격 관련 이론을 통합한다. 미국의 찰스 루퍼트 스톡카드(Charles Rupert Stockard, 1879-1939)는 동물학자, 해부학자로서 ‘인간의 체질적 차이는 개인별 내분비 복합체의 유전 형질 패턴들에 의존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 시작한 이래 1935년 파블로프 때까지 체질 학설이 30여 가지에 이른다. 2000년 이상 서양 의학자들도 계속 탐구해 왔지만 오늘날까지도 체질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¹⁴⁾라고 말한다.

하지만 헉슬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전 것들보다 복잡한 사실에 더 융통성 있게 부합되면서 더 포괄적인, 윌리엄 셸던 박사와 그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분류법이 있다¹⁵⁾”라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윌리엄 허버트 셸던(William Herbert Sheldon, 1898~1977)은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사람을 체형(somatotyping)에 따라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의 3가지로 구분한 것으로 유명하다. 배엽(胚葉·germinal layer)은 동물의 수정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세포분열을 거듭할 때 생기는 3개 세포층(내배엽·중배엽·외배엽)을 말하는데, 이 배엽에서 특정한 기관이 만들어진다.¹⁵⁾ 모든 사람의 체형을 세 가지 범주로 정확하게 안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어느 한쪽 체형의 특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준다.¹⁶⁾ 즉 우리 몸의 기본 체형은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셸던은 체형이 기질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체형 분류에 관련한 배엽형에 의한 분류는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간주된다. 배엽에 의한 분류(체계)는 과학적으로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

닌다. 헉슬리도 “셸던의 세 개 범주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문의 여지없이 가장 적절하게 잘 분류했다¹⁷⁾”라고 말한다. 사람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신체적 요소(내배엽형·중배엽형·외배엽형)와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심리적 요소들¹⁷⁾이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실증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각 요소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¹⁸⁾ 주장한다.

이렇듯 헉슬리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양한 체질론과 기질론을 약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한다. 즉, 모든 앎은 존재의 작용(a function of being)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선천 심리-생리적 체질(Psycho-physical constitution)상 각각 다르게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느 한 생리적 체질 그 자체가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며 세상에서 최선의 의지와 최고의 사회적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그의 심리-생리적 체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지, 체질과 기질의 기본 패턴을 바꾸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이라고¹⁹⁾ 한다.

이러한 헉슬리의 관점은 사상체질의학의 기본적인 입장과 일치한다. 사상의학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태양·소양·태음·소음이라는 네 가지 체질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이 기본 체질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다⁶⁾. 다시 말해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臟器)의 대소(大小)는 벌써 타고날 때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자세의 넓고 좁은 것은 후천적이며 가변적⁷⁾”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명 사상의학의 삼대법칙 즉 ‘사상체질 불변의 법칙’, ‘체질 예외 불허의 법칙’, ‘약물혼용 불허의 법칙⁸⁾’에 대해서 학계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⁹⁾.

하지만 모든 체질학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한방의학과 중의학은 연원이 같으며, 모두 개체체질 차이성에 대한 연구를 항상 중시하

14) “在國外醫學史上, 自公元前400年 Hippocrates 開始到 1935年巴甫洛夫爲止, 體質學說 已不下30餘種. 2000 多年來西方醫學家們也一直在探索着, 但直到今日 對體質的本質尙知之甚少.”(匡調元. 人體體質學-中 醫學個性化治療原理.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3. p.17.)

15) 3개 배엽 가운데 내배엽(endomorphs)은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나중에 소화기관, 배설기관 등이 여기에서 분화되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배엽형의 사람은 비만체질이 되기 쉽고 성격적으로는 느긋하며 사교성이 풍부하다. 반대로 외배엽(ectomorphs)은 가장 바깥쪽에 있고, 신경조직과 피부조직이 여기서 생긴다. 그래서 외배엽형의 사람은 내배엽형과는 반대로 마른 체질이다. 그리고 중배엽(mesomorphs)은 내배엽과 외배엽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결합조직 성분인 뼈, 연골, 근육 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배엽형 사람은 뼈대가 굵고 근육과 골격이 잘 발달한 체형을 지닌다.

16) 정확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이 세 가지 요소는 상당히 혼합되어 있으며, 이 요소들 중 어느 한 요소가 극도로 우세한 사람은 비교적 드물다.”(Huxley A.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990. p.153.)

17) 내배엽형은 내장형(內臟型, viscerotonia) 기질, 중배엽형은 내장긴장형(內臟緊張型, somatotonia) 기질, 외배엽형은 두뇌긴장형(頭腦緊張型, cerebrotonia) 기질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였지만, 지리문화·사회배경·민족습관 등의 요인의 영향으로 체질연구에 있어 중국과 일본 두 나라 학계는 일정한 차별이 형성되었다”¹⁰라 것이다.

체질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의 차이점은, 중국은 병리특성을 생리특성 속에 넣어서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土형의 사람은 “土”성·木형의 사람은 “木”성 등 그 생리병리와 연관되어 있다. 일본은 병리 특성에 편중되어 있다. 즉, 어떤 병증에 대한 인간성 방면의 특징이거나 또는 직접 체질특징과 “証”의 특징이 같다고 본다¹⁰.

요컨대, 일본은 우리의 사상체질의학과 마찬가지로 체질의 불변성을 강조한다. 물론 증후는 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체로 체질이 유전적 결정에 의해 비롯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체질형성은 후천적인 소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체질의 가변성을 강조하면서, 체질은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위에서 보듯이, 일본에서의 체질형성에 대한 인식은 ‘유전결정론’이거나 또는 ‘병리적으로 만들어진 결정론’인 반면에, 중국에서 말하는 체질의 가변성은 성장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조건·생활조건·질병약물 요소 등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체질변화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의 작용이 각 개체가 지닌 체질안정성의 조절·감당능력을 넘어설 때 일어난다. 특히 질병과 약물소인의 영향이 제일 뚜렷하다고 한다¹⁰.

하지만 헉슬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서만 (영적) 앎의 능력을 갖는데, 누구나 특별한 단 하나의 체질(Constitution)과 기질(Temperament)을 갖기 때문에 형이상학·윤리학·심리학 모두를 망라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어떤 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라”¹¹라고 말한다. 즉 체질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 일명 ‘다르마(dharma)’는 체질과 기질, 그리고 영적 앎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다르마에는 두 가지 주된 의미가 있는데, 먼저 개

인의 다르마는 그의 근본적 성질, 그의 존재와 발달에 내재하고 있는 법칙이고, 또 하나는 정당성과 경건함의 법칙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다르마’라는 한 낱말의 이중 의미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한 인간의 의무,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의 근본 성질(essential nature), 체질(constitution)과 기질(temperament)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것’이다.

2. 사상의학의 사상설(四象說)과 통합심리학의 사상한(四象限)

서론에서,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아초월심리학’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켄 윌버(Ken Wilber, 1949~)의 통합심리학은 그 이론적 근거를 영원철학에서 찾는다”라고 하였다. 세계철학자로서 윌버는 시기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동·서양 학문적 교류가 활발한 현대(現代)가 세계철학이 가능한 시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그는 모든 학문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특히 서구심리학과 동양의 영적 전통을 통합하려고 한다¹².

(질문) 다가올 변용의 일부는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 양쪽 모두를 수반하겠군요. …… (윌버의 대답) 네 그렇다고 봅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것은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생님께서 ‘사상한(四象限, AQAL)’이라고 부르는 것과 만나게 하는군요. 그러나 이러한 사상한에 대해 논(論)하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개념에 도달하게 됐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전에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윌버의 대답) 말하자면 처음에 나는 이러한 지도들은 모두 동일(同一)한 영역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본질적(本質的)으로 유사한 홀라카¹⁸⁾[계층구조]¹¹⁾의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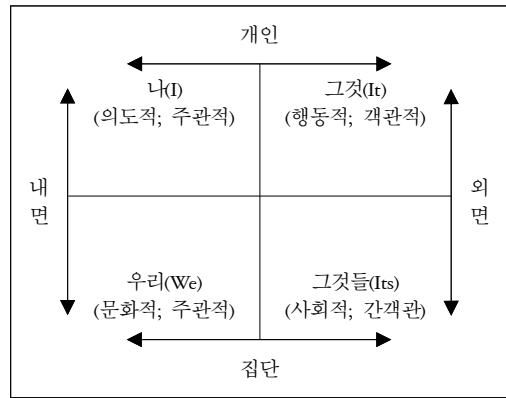
다른 해석들이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 (하지만) 내가 이와 같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나는 이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냥 그것을 단념하고 잊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홀라키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매우 다른 유형(類型)의 네 가지 홀라키들, 즉 네 가지의 아주 다른 형식의 전일적인 (holistic) 순차적(順次的) 순서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지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아무도 이것을 알아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그것이 내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내가 이러한 홀라키들 전부를 네 그룹(영역)으로 묶고 나자 -그리고 그것들이 즉각 제자리에 들어맞게 되자- 각 그룹 안의 각각의 홀라키는 분명하게 동일(同一)한 영역(領域)을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全體的)으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이 아주 명백했습니다¹².

그의 통합적 모델은 이른바 “AQAL(all quadrants & all levels)”이다. 일명 ‘진리의 사상한(四象限)’ 혹은 ‘온 우주의 네 코너’라고 부르는 AQAL은 인류의 지식 전체에 근거한 포괄적인 지도(Comprehensive Map) 혹은 통합적 지도(Integral Map)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상한이 인간의 성장에 결정적인 핵심적 열쇠가 된다고 말한다.

사상한은 말 그대로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네 개의 상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I)’라는 1인칭, ‘우리(We)’라는 2인칭, ‘그것(It)’이라는 3인칭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3인칭 ‘그것’은 단수 ‘그것’과 복수 ‘그것들(Its)’로 나눌 수 있기에 네 개의 상한이 된다. 바꿔 말하면, ‘나(I)’는 개인의 내면이 되고, ‘그것(It)’은 개인의 외면이 되며, ‘우리(We)’는 집단의 내면, ‘그것들(Its)’은 집단의 외면이 된다. 요컨대,

사상한은 온 우주를 사분위(내면/외면, 단수/복수 혹은 주관/객관, 간(間)주관성/간(間)객관성)로 나누어 본 것이다. 이것이 윌버의 통합심리학과 그의 통합사상 전체를 개관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Ken Wilber's AQAL(all quadrants & all levels)



그런데 윌버는 이러한 “사상한의 접근법을 전에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아낸 적이 없었다”¹⁹라고 생각한다. 영원철학과 통합심리학에 근거해서 사상한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사상체질의학은 이제마의 ‘사상설(四象說)’에 근거하며, 사상설은 말 그대로 ‘사심신물(事心身物)’, ‘천인성명(天人性命)’이라는 사원구조를 기초로 설정된 것이다. 이제마는 이미 우주를 사원구조(四元構造)로 보았다. 그래서 ‘사상설(四象說)’에 기초한 의학을 - 이제마 자신도 언급한 바 없는 -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고 명명한다. 실제로 이제마는 그의 초기 저작『格致藁』에서부터 말기 저작『東醫壽世保元』에 이르기까지 사상(四象)에 의한 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상(四象)은 무엇인가? 대학교육과정의 사상의학 공동교재로 널리 상용되고 있는 『四象醫學

18) “모든 실체는 홀론(holon)이고 전체를 갖고 있다는 원리, holon + hierarchy의 합성어”이다.

19) 윌버는 『모든 것의 역사(A Brief History of Everything)』에서 위와 같이 밝히고 있는데, 이는 1996년도 문헌(Boston: Shambhala, 1996)이다. 우리 말 번역서는 2015년에 나왔다.(켄 윌버, 조효남 역, 『모든 것의 역사』, 김영사, 2015.)

』에 따르면¹³, 먼저 천인성명에서 ‘天(機)’은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적 요소로서 객체에 해당”하며, ‘人(事)’은 “인간의 생활이 지니는 특징적 요소”로서 주체가 된다. 또한 ‘성(性)知, 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특징 중에서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적 요소(무형적 요소)”를 가리키며, 그리고 ‘명(命)行, 身」은 “외부로 표출되는 특징과 가시적(물질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지(知)와 행(行)의 개념이 각각 심(心)과 신(身)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심신물(事心身物)에서 ‘사(事)’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심(心)’은 성정(性情)과 심욕(心慾)을 조절하는 근본, ‘신(身)’은 말 그대로 인체(人體), ‘물(物)’은 아(我)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객체(客體)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상의학의 사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율버의 사상한 사분면에 각각 배속시켜 보면,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2. Sasang in 『Gyukchi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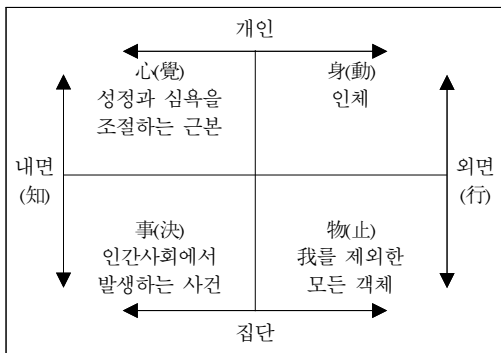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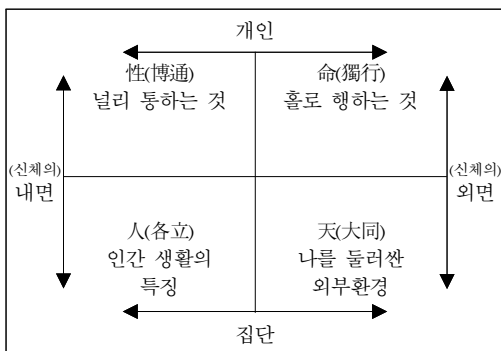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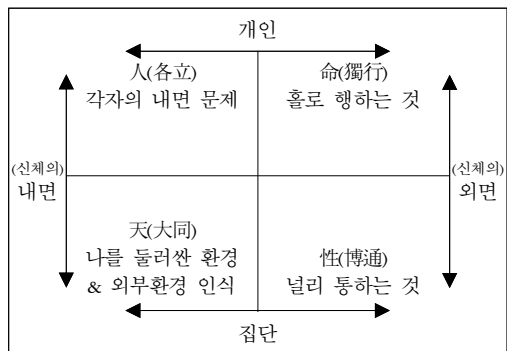
Table 3. Sasang in 『Donguisusebowon』



논자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율버의 사상한에 입각하여, “『格致藁』의 사상(四象)”과 “『東醫壽世保元』의 사상(四象)”을 제시한 바 있다.¹⁴ 단, 東醫壽世保元의 사상의 경우 본고에서는 천인성명의 사사분면의 배정을 기존과 다르게 배속시켰다. 이는 『格致藁』의 사심신물과 『東醫壽世保元』의 천인성명의 연결 배속을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논문의 “『東醫壽世保元』의 사상(四象)”의 도식은 다음 <Table 4>와 같다¹⁴. 이 도식은 『格致藁』 『反誠箴』에 나오는 “太極 心也 兩儀 心身也 四象 事心身物也”와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 나오는 太極(人性人形)·兩儀(知·行)·四象(決·覺·動·止 舒·卷·進·退)을 근거로 한 것이다. 『格致藁』 『儒略』에서는 “땅(地, 物)은 모든 집을 기르니[養] 그 이로움에 인색(吝嗇)하지 않고, 마을은 온갖 사람[身]을 기르니 재능을 아끼지 않으며, 대중[人]은 온 마음을 감싸주니 서로 도모(圖謀)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하늘(天)은 온갖 일[事]을 베풀니 그 시기(時期)에 인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즉 사(事)는 천(天), 심(心)은 사람들(人)에게, 신(身)은 내[命]에게, 그리고 가(家, [物])는 땅(地)에 있는 것이다.²⁰⁾

Table 4. Sasang in 『Donguisusebowon』



20) 『格致藁』 『儒略』 我止篇, “我止在地, 地有家也. 我行在我, 我有身也. 我遇在人, 人有心也. 我決在天, 天有事也. …地養萬家, 不吝其利. 局育萬身, 不吝其材. 衆包萬心, 不吝其謀. 天施萬事, 不吝其時.”

이에 따라 “사(事)는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심(心)은 성정(性情)과 심욕(心慾)을 조절하는 근본이며, 신(身)은 인체를, 물(物)은 나[我]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格致彙』의 사심신물(事·心·身·物)은 각각 천인명성(天·人·命·性)에 배속되어, “事-天, 心-人, 身-命, 物-性”이 된다. 조항성은 “인간을 知(事·心)와 行(身·物)으로 나누어 구분하는데, 지(知)는 곧 事(決)와 心(覺)으로, 행(行)은 곧 身(動)과 物(止)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동(動)하고 정(靜)하는 변화를 사상(四象)이라 한다^{6,15}.”라고 하였다.

하지만 송일병¹⁶, 송정모¹⁷, 이의주¹⁸ 등은 “事-天, 心-性, 身-命, 物-人”으로 배속하고 있다. 이들의 배속은 『東武遺稿』의 “방광은 물(物)이고 허리와 배꼽은 몸(身)이며, 가슴은 마음(心)이고 얼굴은 사(事)이다.”를 근거로 한 것이다. 천인성명과 사심신물의 연결배속에 대해 『東武遺稿』²¹에서는 직접 “사(事)는 곧 천(天)이고 물(物)은 곧 인(人)이고 신(身)은 곧 명(命)이고 심(心)은 곧 성(性)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도식(“事-天, 心-人, 身-命, 物-性”, “事-天, 心-性, 身-命, 物-人”)이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事-人, 心-性, 身-命, 物-天”으로 배속한다. 이것은 언급한 것처럼, ‘事·心·身·物’과 ‘天·人·性·命’ 각각의 의미와 월버의 사상한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성립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정한 도식을 이후 논자의 다른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⁹.

중요한 것은 <Table 2>, <Table 3>에서 보듯이, 이 제마의 사상설(四象說)과 월버의 사상한(四象限)은 사분위라는 큰 틀로 보면, 그 내용면에서 서로 적확(的確)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III. 考察

앞서 영원철학은 세계의 위대한 영적 스승, 사상가, 철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중 다수가 받아들인 보편적인 진리관,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계철학을 표방하는 월버는 영원철학을 이론적 근거로 자아초월심리학과 통합심리학을 발전시켰으며, 자신의 통합적 모델을 구축한다.

언급했듯이, 그의 “AQAL(all quadrants & all levels)”은 ‘온 우주의 네 코너’로서 ‘진리의 사상한(四象限)’이라고 불린다. 또한 사상한은 인류의 지식 전체에 근거한 통합적 지도(Integral Map, Comprehensive Map)라고 주장한다. 단적으로 말해, ‘사상한은 인류 보편의 진리를 표상한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론적·학문적 기틀로 삼은 ‘영원철학은 과연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성을 담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월버 스스로 답은 둘 중 하나라고 한다. 하나는 “아직 출현하지 않은 실재를 유일하게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철학이 “너무도 압도적으로 널리 퍼져 인류역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지적 오류²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영원철학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동·서양에 두루 걸친, 또 여러 시대에 걸쳐 반복된 오류로서 전(全) 인류의 지적 착각(錯覺)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영원철학의 기본 교의는 3천년 이상이나 변화하지 않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띠기 때문이다. 자아초월심리학자 존 웰우드(John Welwood)는 “혁슬리가 “영원의 철학이라고 지칭한 것 즉 모든 주요 형이상학적 전통의 중심에 가로 놓인 인간과 실재(實在)의 본질에 관한 보편적 교의로서 …… 모든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교의는 3천년 이상이나 불변이었다. 그 이유는 이 교의가 시간과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는 실재, 어느 시기, 어느 장소이든지 진리가 되는 실재를 표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²¹”이라고 말한다.

21) 『東武遺稿』 “勝物也 腰膺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事即天也 物即人也 身即命也 心即性也.” (李昌壹 譯註. 東武遺稿. 서울: 청계; 1999. pp.89-90.)

혁슬리 역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학자들은 동양 사상과 철학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 작금에 이르러 수천 년 만에 동서양 사상이 조우했지만, 마치 훨씬 이전부터 학문적 교류를 해 온 것처럼 공통(共通)된 진승 지혜를 이미 공유(共有)하고 있었다는 사실”²²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혁슬리가 말하는 체질(constitution) 혹은 기질에 대한 기본 입장 즉 “우리는 선천 심리-생리적 체질(Psycho-physical constitution)상 각각 다르게 태어”나며, “어느 한 생리적 체질 그 자체가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류 보편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앞서 한·중·일의 체질론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이 동양 체질론의 공통점은 “체질과 질병의 발생이 모두 내재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율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체질은 일부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 병에 잘 걸리는 성질이 있다”¹⁰라고 본다.

그렇다면 서양은 어떠한가. 현대인들 대부분은 질병의 발생이 먼저 외부의 침입(outside insert)이 있고, 그에 대한 신체(인체)의 반응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미국 의사들은 발병의 원인으로 외부의 침입에 초점을 두어 치료에 임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은 외부의 침입보다는 신체 내부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침입에 단순히 맞서 싸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응을 개선함으로써 침입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²³라고 한다.

현대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스퇴르조차도 사람이 병에 걸리는 데 기질(氣質)²²이 세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르네 듀보 Rene Dubos²³) 박사도 기질의 중요성을 피력했는데, 그는 …… ‘아픈 사람들을 살펴보면 체질(constitution)이나 신체상태 또는 사기 등이 세균의 침범을 막아낼 만큼 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파스퇴르의 말을 인용했다. 기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프랑스 의학의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문화는 항생제와 같은 약을 멀리하게 한다²³.

그래서 미국에서는 ‘체질(constitution)’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기질(terrain)’을 중요하게 여긴다²³.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의학의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항생제 복용을 주저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항생제와 같은 약을 멀리한다. 기질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프랑스에서는 ‘기질을 향상시키는’ 약을 더 선호하며, 면역체계²⁴)를 강화하려 한다. 나아가 동종요법이나 방향요법과 같은 주변의학의 수용에도 거리낌이 없다. 요컨대, 미국과 영국의 의학은 병을 외부의 침입자로 보는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외부 요인(즉 먼지나 세균 등)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며, 오히려 질병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기질을 강화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²⁵)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도표로 나

한의과 대학 사상의학교실 위음.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01. pp.248-257.)

- 23) René Jules Dubos (1902- 1982)는 프랑스 출생의 미국의 생물학자, 실험병리학자로서 그의 저작 “인간동물(So Human An Animal, 1968)”로 폴리처상을 수상한다.
- 24) “이러한 문화 덕분에 프랑스는 병과 싸우는데 기질의 영향을 최우선시하는 분야 예를 들어 면역 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한다.(린 페이, 이미에 역. 의학 과학인기 문화인기. 서울: 몸과 마음, 2004. p.108.)
- 25) 프랑스인이 기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로서 “경련체질(spasmophilia)”이라는 진단을 들 수 있다. 1948년 앙리 피에르 클로트(Henri-Pierre Klotz)가 ‘성인경련 체질’을 처음으로 정의 내렸는데, 경련체질이란 잠복성 정상 칼슘혈증 강축증(latent normocalcemic tetany)을 말한다. 또한 강축증의 예로서 ‘과도호흡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근육경련’을 들 수 있다. 이 경련체질이라는 진단은 프랑스에만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기질이 병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기 때문인지 수술을 할 때도 가능한 한 수술부위를 국부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자궁절제술보다 자궁근절제술, 전자궁절제술보다 부분자궁절제술을 더 선호하고 전립선암을 치료할 때도 가능한 한 수술 이외의 요법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종류의 수술이나 처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린

22) 린 페이언은 “영어에는 기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 고문(古文)에 많이 쓰이는 ‘체질 constitution(미국에서는 체질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쓰지 않은 지 오래됐다)’이라는 단어가 기질이 의미하는 바에 가장 가까울 것 같다”라고 말한다. 엄밀히 말해 서양의학에서의 인간유형 분류는 ‘체질론’이라기보다, ‘기질론’이라고 해야 한다. 『四象醫學』의 “유형체질(類型體質)의 동서고찰”이라는 절(節)에서는 서양의학은 유형기질론(類型氣質論), 동양의학은 유형체질론(類型體質論)으로 구분한다.(전국

Table 5. Various Views on Constitution(Temperament)

한(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체내의 구조와 기능, 재능과 정신상태까지 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다. · 후천적 환경 소인을 중시하나, 체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 영원철학에 근거한 윌버의 통합적 모델, 즉 사상한(四象限, “은 우주의 네 코너”)은 사상체질의학의 사상설(사원구조)과 일치한다.
중(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질의 가변성을 강조한다. · 환경소인으로 체질이 변한다. 예컨대, 체질이 연령(年齡)에 따라 변한다.
일(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질의 불변성을 강조한다.(체질의 기본은 유전적 결정에 의해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 대체로 체질 형성에 환경소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프·독(佛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의 원인으로 기질(terrain)을 중시한다. · 발병의 원인으로 신체 내부의 반응에 초점을 둔다. · 크레치머(E. Kretschmer)는 정신신체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3대 유형(비만형, 세장형, 투쟁형)으로 분류한다.
영·미(英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병의 원인으로 외부의 침입에 초점을 둔다. 즉 세균에 맞서 싸운다. · 셸던(W. H. Sheldon)은 사람의 체질구조가 출생 전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우리 몸의 기본 체형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본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 융(C. G. Jung) 은 심리학적으로 내향성과 외향성의 일반적 태도유형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사고·감정·감각·직관의 심적 기능에 의한 기능유형을 조합하여 8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타내면 <Table 5>와 같다.

앞서 『*The Perennial Philosophy*』에서 언급했던, 허슬리의 체질에 관한 견해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① 사람은 선천 심리-생리적 체질(Psycho-physical constitution)상 각각 다르게 태어난다. ② 타고난 생리적 체질과 연관된 특정 기질은 협소한 한계 내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③ 어느 한 생리적 체질 그 자체가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④ 세상에서 최선의 의지와 최고의 사회적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선천적인 그의 심리-생리적 체질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지, 체질과 기질의 기본 패턴을 바꾸는 것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다. ⑤ 지난 3,000년 동안 인간의 차이를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완성도가 높은 분류법이 있었지만, 그 이전 것들보다 복잡한 사실에 더 융통성 있게 들어맞으며 더 포괄적인 분류법은 (사람의 체질구조가 출생 전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본) 윌리엄 셸던과 그의 동료들이 만든 분류법이다.”⁵⁾ 그리고 이 영원철학을 근거로 통합사상을 구축했던 윌버는 그의 통합적 모델로 사상한(四象

限)을 제시한다. 이 사상한 즉 ‘은 우주의 네 코너’는 사상의학의 사상설(四象說, 사원구조)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영원철학의 체질론과 거의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사상체질의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동무의 사상체질론은 영원철학과 같은 진리의 보편성을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IV. 結論

사상체질의학은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철학적·심리학적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본고에서는 영원철학과 통합심리학적 측면에서 사상체질의학이 갖는 범(汎)진리적 보편성을 밝힌다.

실제(實際)에 얼마나 부합되는가하는 정합성 문제를 차치한다면, 체질(기질) 이론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한 인류 보편의 현상, 사유의 결과물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3,000년 동안 체질(기질)에 대한 연구는 수십 건이 넘으며 점차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 체질론(기질

페이어, 이미에 역. 의학 과학인가 문화인가. 서울: 몸과 마음; 2004. pp.108-115.)

론)은 우리와 같은 동양권의 중국이나 일본, 인도는 물론이고 서구 즉 고대 그리스, 로마,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은 각국의 의료권에서도 주목한다. 하지만 그들의 체질론은,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영원철학의 체질(기질)관련 내용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올더스 헉슬리의 『영원철학』에서는 불변하는 인류 전통의 지혜로서 체질론(기질론)을 하나의 장(章)으로 정리하여 요약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선천 심리-생리적 체질상 각각 다르게 태어나며 어느 한 생리적 체질이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비록 의지가 있고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도 심리-생리적 체질을 이용할 뿐이지 체질과 기질의 패턴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한 인간의 믿음, 행위, 태도 등은 체질이나 기질에 의해 조건화된다고 한다. 이런 입장은 사상의학의 체질론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철학자이자 통합사상가 켄 윌버는 영원철학에 근거해 자신의 통합적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 통합적 모델 즉 사상한(四象限, AQAL) 역시 사상체질의학의 사상설(四象說)과 적확하게 일치한다. 그는 사상한이 “진리의 사상한” 혹은 “온 우주의 네 코너”라고 불리듯이, 온 우주를 넷으로 나누어 본다. 사상의학 역시 우주를 사원구조로 본다. 윌버 자신은 이 사상한을 본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무 이제마는 일찍이 자신의 저서 『격치고』(1893)와 『동의수세보원』(1894)에서 우주를 네 가지 구조로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자신의 의학 이론에 적용시키고 있다.

바뀌 말하면 ‘사상의학의 사상설은 인류보편의 진리를 표상한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영원철학과 현대 심리학(통합심리학, 자아초월심리학)은 사상체질의학이 보편적 진리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이를 지지한다.

V. Reference

1. Cho HN. Consciousness, spirituality, self-transcendence and complementary integration. Seoul: hagsulim. 2008:73. (Korean)
2. Laibelman Alan M. The Other Perennial Philosophy: A Metaphysical Dialectic.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2000:5.
3. Heo H. The Perennial Philosophy. Seoul: ullyeog, 2013:269-279. (Korean)
4. Lee UJ. Taeyangin Soyangin Taeumin Soeumin. Seoul: Jipmoondang. 2006:11. (Korean)
5. Huxley A.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990:146-153.
6. Heo H. Dongmu Lee Je-Ma's philosophy of thought. Seoul: simsan. 2009:216. (Korean)
7. Song IB. Easy-to-understan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Hana media. 1993:145. (Korean)
8. Kim CM, Ryu SS. Lee Je-Ma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ilence of a hundred years, its great legacy. Seoul: Academic books. 2002:61-62 (Korean)
9. Chang DM. Proper understanding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sallim. 2007:24-28. (Korean)
10. Wang Qi(王琦) Chief editor(translation by Kim D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nstitution. Seoul: jeongdam. 1999:146-153. (Korean)
11. Battista John R, Scotton Bruce W, Chinen Allan B(translation by Kwon KH, et al.). Textbook of transpersonal psychiatry and psychology. Seoul: hagjisa. 2008:109. (Korean)
12. Wilber K.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Boston: Shambhala. 2007: 107-108.
13. Sasang constitutional department of national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Jipmoondang. 2007:69. (Korean)
14. Heo H. Connection of Dongmu Lee Je-ma's Sasang Theory & Ken Wilber's all-quadrant approach. J of

-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2010;116:421-424. (Korean)
15. Cho HS. Principle and prescrip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Jipmoondang. 2003:22-27. (Korean)
 16. Song IB. The Morpho-Imaganary Viewpoints of Lee Je-ma and the Morpho-Imaginary recognition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7-9. (Korean)
 17. Song JM. A Study on The Principles and Philosophical Basis of 'Sa Sang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1992;4(1):17-18. (Korean)
 18. Lee UJ, Song IB. The Study of Lee Je-ma's Sasang Philosophy.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 19-22. (Korean)
 19. Heo H. A Medical Review on Dongmu Lee Je-ma's Philosophical Ideas from Ken Wilber's AQAL(All Quadrant, All Level) Point of View. Philosophy of Med. 2011;12:39.
 20. Wilber K(translation by Kim MK, Min HJ). One Taste: Daily Reflections on Integral Spirituality. Seoul: hakjisa. 2011:99. (Korean)
 21. Welwood J(translation by Park HJ). The meeting of the ways : explorations in East/West psychology. Seoul: beomyangsa. 1994:30. (Korean)
 22. Huxley A. The Perenn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990:200. ; Heo H. View of the God in Daesoon thoughts viewed from perennial philosophy. J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2015:180. (Korean)
 23. Payer I(translation by Lee MA). Medicine and Culture: Varieties of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West Germany, and France. Seoul: momgwamaeum. 2004:106-107. (Korean)